

##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내년 1분기에 더 악화

내년 1·4분기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내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1·4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1·4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는 '92'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1·4분기(83)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향후 체감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26.4%(전분기 32.2%)인 반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4%(전분기 35.5%)로 나타나 악화를 예상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환율 하락의 지속으로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감소할 것"이라며 "또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부진이 예상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삼성 드럼세탁기 도하 AG에 800대 공급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하우엔 에어워시 드럼세탁기 800여대를 공급했다.

드럼세탁기는 선수촌에 324대, 대형 세탁실에 32대가 설치됐으며 아시안게임 방문객 거주용 아파트에 459대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45개국 선수단과 취재진·응원단 등 1만5천여명이 삼성전자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향후 아시아·중동지역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워시 세탁기는 물세탁 기능 외에 공기만으로 도 세탁하는 코스를 추가,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옷에 밴 냄새와 먼지·진드기·세균 등을 말끔히 세탁해주는 첨단제품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양제철소 자동차강판 품질 대폭 개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7월 '글로벌 No.1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완성'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이후 자동차강판의 품질 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용 외판재의 수준이 일본 경쟁사 수준에 근접했고, 주요부품 대비 불량률도 7월을 정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국내와 고객사로부터도 품질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고품질 자동차강판 생산과 관련된 여러 생산공정에서 연체적인 개선효과가 창출됐다. 쇳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제강공정은 물론, 제품의 표면 품질을 결정하는 열연·냉연·도금부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주택대출 '이자폭탄' 경계령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세로 전환, 대출자들에게 이자폭탄 경보가 발령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호응해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데다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까지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CD금리 급등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거액을 대출한 소비자들은 물론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8~6.68%가 적용된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대출금리가 연 5.62~6.62%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주간 0.06%포인트나 급등했다.

한달전인 10월30일자 기준 대출금리는 연 5.38~6.58%로 콜금리가 오르기도 않았는데 대출금리가 0.30%포인트나 올랐다.

주택 대출로 1억원을 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한달여만에 30만 원 늘어난 셈이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 마지막으로 콜금리가 인상됐던 8월 5.51% 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5.3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한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경우 연 5.68~6.98%로 전주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의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도 연 5.38~6.68%로 지난주보다 0.07%포

CD금리 일주일새 0.06~ 0.07%P 급등

콜금리 인상 가능성...기존대출자 부담커져

인트 급등했다.

주요 은행의 주택대출금리가 이처럼 급등하는 것은 대출금리와 기계적으로 연동이 돼 있는 CD금리가 이번주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 가산금리 인상은 일부 은행으로 한정됐고 대상도 신규대출자로 한정됐지만 CD금리 상승폭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CD금리는 8월 연 4.71%를 고점으로

10월 말에는 4.57%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상승곡면으로 접어들어 1일 기준 연 4.70%로 8월 콜금리 인상 직후 고점인 연 4.71%에 근접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에 다음주 금통위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CD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금통위가 열리는 7일까지는 불안한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e-세상'에도 부동산 광풍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을 질타하는 글들이 정부 각 홈페이지에 쇄도하는가 하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등 'e-세상'이 부동산 논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3일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홈페이지에는 종부세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비롯, 수도권 '집값 광풍'이나 지방부동산 침체 등 부동산 관련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 장모씨는 "있는 사람만 더 부자 만드는 나라를 보니 정말 살

맛이 안 난다"며 "버는 돈을 꼬박꼬박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꾀지만 지난 몇 달간 된 집값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이 인터넷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이 법안에 일단 찬성하는 분위기다. 대화명이 '애베'인 네티즌은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도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스트레스 없이 살자"고 주장했다.

## 청와대·건교부 등 홈페이지 종부세 등 정책 질타 글 쇄도

반면 '반값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도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 '갓구온빵'은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기 마련인데 분양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누가 집을 사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시위가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집값 관련 글을 올리면서 제목에 시위의 표시로 'ㄴ' 표시를 붙여 게시물을 작성했다. 'ㄴ'은 아파트(ㅏ)값을 내리자(ㄴ)는 뜻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11월중 주택대출 3조 7,000억

은 나라를 휩쓴 부동산 광풍(狂風)을 타고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7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않은 조짐을 보이자 은행들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출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9천119억원으로 10월말 잔액 139조2천387억원에

비해 무려 3조6천73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의 증가액 3조3천505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금액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3천522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신한은행은 1조442억원, 우리은행 9천843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두배 가량 늘었다. 하나은행은 2천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값 폭등세를 타고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시행 이전에 예비 수요까지 앞다퉈 대출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파 몰린 '남도미각대전'

농협전남본부가 지난 1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마련한 '남도미각대전'에 수천 명의 고객들이 몰렸다. 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전에서는 해남 육천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등 5대 명품쌀, 굴비·간장계장 등 전남특산물을 판매한다. 또 농협은 오는 15~21일 신세계 마산점, 22~28일 신세계 영등포점에서 잇달아 행사를 갖는다.

농협전남본부가 지난 1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마련한 '남도미각대전'에 수천 명의 고객들이 몰렸다. 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전에서는 해남 육천농협의 '한눈에 반한쌀' 등 5대 명품쌀, 굴비·간장계장 등 전남특산물을 판매한다. 또 농협은 오는 15~21일 신세계 마산점, 22~28일 신세계 영등포점에서 잇달아 행사를 갖는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제공>

## 집값 2008년부터 잡힌다

### 내년까지 국지적 상승세 현대경제연구원 부동산 대책

2008년부터 2년간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이라는 보고 서에서 "단기적으로는 국지적인 수급불안 요인과 2007년 대선을 앞둔 규제완화 기대심리의 반영으로 가격안정을 낙관할 수 없으나 11·15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이는 2008년부터 약 2년간은 부동산 가격의 조정국면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내년 서울과 경기도의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올해에 비해 약 2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1차 뉴타운과 잠실 재건축 지구 및 판교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 시작되는 2008년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의 국지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는 뉴타운과 판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관객들을 위한 특별! 불려가야! 전문인

SENS-MO는 최고의 전문가가 만든

# 맞춤가발입니다!

1. 맞춤형 가발 옵션  
Open 기념  
2. 고객사 고의  
3. 맞춤형 가발  
4. 맞춤형 가발

062)676-3545  
062)432-3545

Sens-Mo

www.100459.com

이타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홍 스킨이스트

충주광역시 남구 삼봉로14길(구도합동) 5호 02)220-7507

이탈리아 스킨이스트 100% Made In Italy  
디자인 및 정돈 02-220-7507